

발행인	민병현
편집인	차수봉
편집장	안재봉
편집부	주영민
발행처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41-4132)
전화	100-715
팩스	02(2)79-1270
발행일	1992년 9월 2일 (수요일)

대책위 요구안 수용이 해결 실마리

학교당국, 3일 88년 지급동결액 자료공개 약속

총동맹위원회 부활을 둘러싼 학교당국과 총동맹위원회 간의 갈등이 수습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학교당국이 3일 지급동결액 자료를 공개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한편 대책위가 촉구하는 88년 지급동결액 총동맹위원회 6천만원의 전상규정과 관련해 유주형 총동맹회 부회장은 "지난 88년 총동맹위원회는 학교당국으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이후 사건전개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현내상황에 맞춰 학생회측에서는 이번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총학생회 부활을 통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총동맹위원회 부활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총학생회장 이광집(전기4)은 "전체적으로 해결방안은 총학생회측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이번 일에 대한 학교당국의 책임은 확실한 자세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조속한 시일안에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 의사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학교당국이 이번 총동맹위원회를 부활시킨 과정에서 의욕의 소지가 존재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정점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총학, 총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회장=이광집·전기4)가 총동맹위원회

북경대와 학술 논문집 발간예정

한·중 불교학술회의 추진계획

본교와 중국 북경대가 지난 90년부터 추진해온 불교학술교류의 성과로 '신라 동방문화'라는 논문집이 내년 4월쯤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논문집에 게재될 논문 11편은 '작시와 참선(禪詩與參禪)', '신수북송선법(新修北宗禪法)' 등 9편은 이미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북경대에서 주최한 '제4차 조선학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중국을 방문한 오형근(불교학)교수가 북경대총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다. 논문집은 본교 교수 10여명의 논문과 중국학자의 논문 2편이 완성되는 대로 발간할 예정이다. 본교 교수의 논문으로 오형근(불교학) '신라의 선사상' 김영태(불교학) '조선조 초기의 선사상' 채인환(신학) '고려 초기의 선사상' 등이 수록된다.

또 논문집 발간후 중국측 필자 및 명을 초청해 한·중 불교학술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불교학술교류과정에서 개선될 전 북경대총장은 오교수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



△대책위 구성후 총동맹회 인회비 부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총대, 총학1학기 통산감사

공약 실행미흡과 각단위 연대 소홀 지적

총대의원회가 지난달 20일 끝난 총학1학기 통산감사의 결과보고서가 지난달 28일 중

앙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총학은 지난 1학기에 자료 미제출로 인한 경고와 총대의원회로부터 감사 준비부족, 자료 불충분등의 평가를 받았다. 나 이번 감사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학기 경고를 받았음에도 구제되지 못한 자료로 지적을 받았고 감사가 끝난 지 10여일이 지났음에도 대차보통을 통한 예산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감사주체인 총대의원회는 감사특위의 분담작업에서 결집력과 집행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이에 총대의원회 회장 김성원(정외4)은 "감사 시기의 절차 체계가 약화됐으며 중앙위원들의 감사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라고 밝혔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대표자회의의 논의력과 위

상에 맞는 집행구조의 부족과 공약에 대한 실천이 미비하고 공개적이지 못한 점들이 지적됐다.

또한 집행부 평가에서는 단위 주체의 자각부족(휴학생)의 지적이 있었고 조직관리와 이완을 평가근거로 들었다.

한편 지난달 18, 19일 진행된 학부위 1/4분기 감사중 사·연·조직감사 등에 예산감사는 오는 5, 6일에 있게 된다.

‘대학소식’발행

공보부(부장=이병수)는 오는 9일 전후로 학교홍보지 '대학소식' 제6호를 총3면 발행, 전국 1천7백여 고교에 우선 배포할 예정이다.

매년 본교를 지원하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각 고등학교에 배포되는 '대학소식'은 작년 대비 4쪽이 증편되어 내용 예정이다.

보수

중국의 후한시대에 채륜에 의하여 만들어진 종이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그 기술이 발달해서 지방에 따라 제법이 달랐던 모양이다. 경상도에서는 말이 많으므로 보리짚을 원료로 하여 만든 모질지가 주로 생산되었고 전라도에서는 논에서 나는 벼짚을 이용하여 고정지(靑精紙)가 만들어졌으며, 충청도에서는 모시의 원료인 삼(蔴)이 많이 나므로 이를 이용한 마골지(麻骨紙) 등이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다.

감지(紺紙)

리가 흔히 감청색(紺靑色)으로 부르는 이 색깔은 '감(紺)자'를 일본식 발음으로 '紺'자로 읽어서 '紺靑'이라고 하는 데 이는 잘못이다. 쪽풀은 그 성미가 까다로우며 부정할 곳을 싫어하며 고

기급은 뽕사슴을 얻으면 빛깔이 흐려지기 때문에 사슴에서 스남들이 수행의 일과로써 이를 많이 채배했다고 한다. 또한 쪽풀을 들일 때는 그 정성에서 대단해서 700년 이상을 손질해야 하는데, 만약에 699년을 잘하고 한탄만 소홀히 해

므로 오래도록 보존할 목적에서 사경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사경 그 자체가 또한 불교수행의 한 덕목인 것으로 보아서, 감지와 사경은 불가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경할 때에 한 자 한 자에 정성을 다하여 써내려가는 과정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출발점이고, 그 지속은 정신도야의 근본이며, 인간형성의 깊은 수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이의 공덕을 일컬어서 큰 서원을 이룰 수 있는 징검다리라고 한 것은, 그간의 정성을 잘 말해주는 교훈으로 여겨진다.

李 萬

수습기자 추가 모집

대학연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식있는 남녀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 ○명
②응시자격: 서울캠퍼스 1학년 남·여재학생(92학번)
③모집분야: 일반 및 시사기자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발행판사진 1매(지침서는 본사 홈페이지에서 배부중)
⑤원서접수: 9월23일(수) 오후4시까지
⑥시험일자: 9월24일(목) 오후5시
⑦시험과목: 1차 필기-사실·작문(단 사지기자 응시자는 1차 필기)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인간과 기술의 만남 테크노피아

테크노피아란 첨단 전기·전자기술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인간생활을 이루는 기술혁명을 말합니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대학생 여러분의 바램과 상상을 적어 보내주세요. 꿈과 이상은 새로운 개혁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금성은 21세기 대학의 변화상에 대한 대학생 여러분의 희망과 바램을 공모합니다. 미래의 최첨단 전기·전자 테크놀로지를 대학에 활용하면 대학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여러분의 생각을 원고지에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꿈과 금성의 기술로 미래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봅시다!

- 응모자격**
21세기의 변화된 대학생활 모습
● 강의실, 강의방식의 변화 ● 도서관 활용시스템
● 실험실습실 운용방식 ● 씨클럽등의 양성
● 기타영역(자유제외 선정) 위의 주제중 택일
- 응모요령**
주제에 관한 바램과 상상을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로 정리하고 결함된 원고지 상단에는 학교, 학과, 성명 및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주세요. (제출된 원고는 반환치 않으며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소유임)
- 응모자격**
전문대학이상 대학(원) 재학생
- 응모마감**
'92년 9월 21일 (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응모처**
● 150-7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럭키금성드림빌딩 (주) 금성사 전략광고실
문의전화: 787-1657, 1691 테크노피아 광고담당자
- 시상내용**
● 최우수상 1명 (장학금 100만원)
● 우수상 4명 (장학금 각 50만원)
● 가작 5명 (각 20만원 상당의 상품)
- 발 표**
당첨자는 개별통지하며, 10월초 대학신문에 발표 예정입니다.



21세기 테크노피아의 대학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인간·기술·미래 대학생 산문공모

개강파티 술판(?)으로 끝나야 하나

선후배 진솔한 대화 나누는 자리돼야

“마시자, 한잔의 술~”
 옛부터 내려오는 대학의 풍속도 개강파티, 우리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 개강파티같은 것에 낭만을 느꼈다. 동기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환담으로 다시 시작하는 새학기를 제각기 축하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했다.

나 업허가야 끝나는 술자리.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물들을 트레내고 술집을 전전하다가 들르게되는 노래방. 이것을 두고 낭만스럽다 하겠는가.
 또한 아무개학과의 경우 무슨 호환의 나이트 클럽에서 새 학기를 맞았다하니 이처럼 소비지향의 파소비 개강파티가 언제부터 판을 치게 되었는지 때로는 한심스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물 억제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 먼저 술자리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두서없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균중심리가 발동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신분에서 크게 어긋나는 소비지향의 장소선택은 안될 것이

다.
 몇가지 예를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개강파티를 하는 정신의 개선이다.

이재평
 <문과대 사학과>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발송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260-3491-2.

경주, 입금·지급 전문은행 필요 우체국 업무과중에 따른 불편 많아

국민경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대학이라는 소규모의 사회에서도 학생들의 경제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현재 경주캠퍼스 우체국은 인력·공간·설비 부족등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
 먼저 경주캠퍼스의 지리적 위치가 시내와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자연히 경주캠퍼스 우체국에서 입금·지급이 이루어지고, 많은 학생들이 사용함으로써 일처리가 늦어지게 된다. 둘째로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마찰이 생기기도 하며, 통장을 새로 만들기 때로는 시내에서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셋째로, 앞으로 지적했듯이 공간 또한 협소하며, 사무자동화시

설이 부족해서 신속한 일처리가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체국이용자로서 불편함을 덜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로는 학기초의 등록금이나 기숙사생들의 기숙사비 조달 문제로 지급준비금액의 여유가 부족할 때가 간혹 있다.
 우체국은 전문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하나에 한 의존할 수 없는 점을 설명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최근에 은행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체국은 우체국대도 소식 전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은행 또한 전문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할 때 좀더 명확하고 여유 있는 업무처리를 할수있고, 사용자에게도 도움을 보일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박은경(인문대 국문과)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자

우리 학교 각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절로 불쾌이 터져나온다.
 우선, 바닥이 젖은 채 내려 있는 휴지나 머리카락을 비롯 해 담배꽂초나 침까지 화장실을 더럽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비록 매일같이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하지만, 한나절만 지나면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마니,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반성의 기운을 느낄 필요가 있다.

한번씩만 나이나던 남을 생각한다면 그런 모습의 화장실은 안 될테니...
 한술 더 떠 학림관과 동극관에서는 이에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마저 있다.

바로 문고리가 꼬장난 것인데, 벌써 몇개월이 지났지만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는 반드시 동행인(?)을 동반해야 하는 우습지 않은 일은 겪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좀더 향기로운(?) 화장실을 만들어 줘요.
 조은영(문과대 국문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은실아저씨’ 김영선(44세) 씨

강한 햇살이 사그라들 즈음 아저씨는 동료직원과 함께 동악의 화단에 물을 주러나선다.
 ‘은실 아저씨’로 불리는 김영선(44세) 아저씨는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벌써 16년째 동악의 꽃과 함께 살아왔다.

관제과 원예파트에서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일하시는 아저씨는 꽃과 인연을 맺은지 20년이라고 한다.
 그 때문인지 얘기 도중 얼굴 하나 가득 웃음을 머금은 것은 아저씨의 꽃을 피우는 마음 탓인 듯하다.
 아저씨는 매년 여름과 가을에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학교 농장에서 올라온 꽃들을 팔경도 화단과 후문쪽 농원등산에 심고 가꾸는 일을 한다.

여름에는 펜지, 피튜니아에 가을이면 사부비야, 메리골드 등 주로 수명이 길고 생명력이 강한 품종을 심는다.
 또 행정사무실이나 교수연구실에서 죽기 직전의 화분을 과학관 뒤의 온실로 옮겨다 살려놓곤 한다.
 아저씨는 요즘 학생들에게 화가 나 있다.

“꽃을 심어놓은 농원등산에서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청소년도 안 하면서 꽃을 마구 꺾어 놓는가 하면 화분도 걸어차 못쓰게 된 것이 많다”라며 학생들의 부족한 애교심을 꼬집는다.
 가을이면 다시 바빠질 아저씨의 온실한 귀뚜라미에는 손수 키우는 국화 1백송이가 단계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수로 기자)

지나후 동대신문을 읽고

단순보도와 함께 심층취재 필요하다

현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고 고발함이 주(主)가 되는 대학신문에서 독자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실상 어렵다.
 이에 개강호 동대신문에선 새로운 ‘관’배치가 유난히 돋보인다.
 “중·알아들었다”와 ‘대체비평’란 작은 지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사보다도 글이 짙다는 느낌을 주었고 유

달리 산뜻해 보였다.
 동해남선학사에 관한 기사도 시기적절한 테마로 독자들로 하여금 호감을 얻게 주었다.
 하지만 ‘낙산학사’기사에는 학교당국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취재가 아쉬웠다. 가령, 낙산학사의 학교행정지원내역을 밝힌다든가, 또는 학사내에 있는 식당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자의 취재가 발길을 닿지 않았던 것 같

다.
 앞으로 단순히 기사의 사실 보도에만 그치지 말고 기자가 좀 더 사전대비를 하고 들어 독자가 한눈에 그 기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자들의 부지런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김상유
 (문과대 영문과)

학생회 공약 진흥관 시설확충 이행돼야

“원효관이 달라졌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며 바라본 개시관에는 방학동안 인문대학생들의 노력으로 변화된 원효관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었다.

무심코 읽고 지나쳤던 학우들 이라도 도서관 옆에 새로이 설치된 의자를 보고는 예전의 빈약했던 인문대 휴식공간을 떠올리며 흐뭇한 표정을 지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우들도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진흥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은 인문대 학우들의 표정처럼 밝지가 못한 것이 사실이다.

4대 상경대 학생회가 출범하고 그들의 사업방향에 발표되었을 때 상경학우들의 기대는 예년에 못지않았다. 학생회측에서 제시한 안전들이 학우들의 복지증진과 진흥관의 상경대로서 필요하다는 당면과제였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진흥관내 여학생 휴게실의 개설, 식당음식의 질개선과 다양화, 특히 상경대 PC중심 및 Printer기 도입은 빈약하지만 한 상경학우들에게 절실한 문제였고 학생회가 출범할 때마다 거론된 문제였다.

학생회는 올바른 계획을 수립, 학우들의 기대와 신뢰를 성실히 실천해나간 한다. 진정 학우들을 대신하는 학생회라면 그들의 노력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서미진
 (상경대 회계학과)

□서초동 꽃마을에서 은 어느 꼬마의 편지

엄마!
 철거없는 세상에서 살고싶어요

엄마! 철거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왜? 구정에서는 우리들을 찾아볼까? 우리는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우리를 내쫓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쫓겨 가면 갈수록 없는 거지인데, 엄마, 구정에서는 왜 철거를 하는거냐구요.
 엄마!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대통령 아저씨! 제발 강제철거를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대통령 아저씨, 저는 학교에서 거지라고 놀림받기 싫단말이에요.
 대통령 아저씨, 소원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 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엄마! 강제철거가 없으면, 17%의 학생들은 ‘88년 학생총회 결정사항’이므로 낼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총동창회의 개신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엄마! 철거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왜? 구정에서는 우리들을 찾아볼까? 우리는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우리를 내쫓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쫓겨 가면 갈수록 없는 거지인데, 엄마, 구정에서는 왜 철거를 하는거냐구요.
 엄마!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대통령 아저씨! 제발 강제철거를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대통령 아저씨, 저는 학교에서 거지라고 놀림받기 싫단말이에요.
 대통령 아저씨, 소원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 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엄마! 강제철거가 없으면, 17%의 학생들은 ‘88년 학생총회 결정사항’이므로 낼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총동창회의 개신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초동 꽃마을에서 은 어느 꼬마의 편지

엄마!
 철거없는 세상에서 살고싶어요

엄마! 철거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왜? 구정에서는 우리들을 찾아볼까? 우리는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우리를 내쫓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쫓겨 가면 갈수록 없는 거지인데, 엄마, 구정에서는 왜 철거를 하는거냐구요.
 엄마!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대통령 아저씨! 제발 강제철거를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대통령 아저씨, 저는 학교에서 거지라고 놀림받기 싫단말이에요.
 대통령 아저씨, 소원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 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엄마! 강제철거가 없으면, 17%의 학생들은 ‘88년 학생총회 결정사항’이므로 낼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총동창회의 개신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엄마! 철거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왜? 구정에서는 우리들을 찾아볼까? 우리는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우리를 내쫓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쫓겨 가면 갈수록 없는 거지인데, 엄마, 구정에서는 왜 철거를 하는거냐구요.
 엄마!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대통령 아저씨! 제발 강제철거를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대통령 아저씨, 저는 학교에서 거지라고 놀림받기 싫단말이에요.
 대통령 아저씨, 소원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 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엄마! 강제철거가 없으면, 17%의 학생들은 ‘88년 학생총회 결정사항’이므로 낼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총동창회의 개신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초동 꽃마을에서 은 어느 꼬마의 편지

엄마!
 철거없는 세상에서 살고싶어요

엄마! 철거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왜? 구정에서는 우리들을 찾아볼까? 우리는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우리를 내쫓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쫓겨 가면 갈수록 없는 거지인데, 엄마, 구정에서는 왜 철거를 하는거냐구요.
 엄마!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대통령 아저씨! 제발 강제철거를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대통령 아저씨, 저는 학교에서 거지라고 놀림받기 싫단말이에요.
 대통령 아저씨, 소원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 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엄마! 강제철거가 없으면, 17%의 학생들은 ‘88년 학생총회 결정사항’이므로 낼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총동창회의 개신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엄마! 철거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왜? 구정에서는 우리들을 찾아볼까? 우리는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우리를 내쫓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쫓겨 가면 갈수록 없는 거지인데, 엄마, 구정에서는 왜 철거를 하는거냐구요.
 엄마!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대통령 아저씨! 제발 강제철거를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대통령 아저씨, 저는 학교에서 거지라고 놀림받기 싫단말이에요.
 대통령 아저씨, 소원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 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엄마! 강제철거가 없으면, 17%의 학생들은 ‘88년 학생총회 결정사항’이므로 낼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총동창회의 개신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문칼럼



한국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객관적인 평(評)을 거치지 않은 나의 독자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한국인이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말이 옳을 것이다.
 뚜렷한 비전과 소명의식이 없는 정치인들은 기약없는 파벌싸움만 펼치고 있으며, 부의 의미조차 모르는 경제인들은 복지나 공생이나 하는 경제의 기본용어조차 모른 채 그저 기간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이, 사회는 사회대로 무가치 무절제 무규범이라는 아노미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기숙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우리의 문화는 고상한 사람의 개성파시나 피상한 집착 정도로만 치부되고 있다는

백년후의 비범이 필요하다

느낌이다.
 왜 배후는 것인가, 왜 분노하는 것인가, 왜 돈을 버는 것인가,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어부를 벌며 왜 주위를 서성거리야 하는가.
 한하를 의미없이 만나의 미인이 헤어진다.
 “요즘 하는 일은 잘 되고?”

“그저 그렇기 뭐”
 “연락 좀 하고 지내자고”
 “그래, 시간 있을 때 술 한잔 하자”
 갈 곳 몰라 엉엉 우는 어노미 현상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일까?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사들인 미국의 어느 법무부장은 타국의 국익을 도왔다는 당시 국내

를 힐끗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인이 필요하다는 누구를 위해 뛰어가 고 해달라, 나는 누구를 위해 담 홀리고 있으며,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가.
 있는 것이 있으면 없는 것도 있다. 하나를 소유함은 더 큰 하나를 잃는 것이다.
 젊은 대학생들의 천재성이 필요하다. 젊디나 젊은이

온방골

목errick

- 고추·참기름 직거래 안내
-품목:고추, 참기름, 들기름
-가격:고추(근당) 태양초(최상품:6천5백원), 화진초(최상품:5천5백원) - 10근단위로 포장판매
-혜택:200원 (9천원), 들기름(5천원)
-신청:이메일로 축하합니다.
-판매장소:해운대
-판매기간:오늘(2일)부터 8일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도 볼론.
-문의:260-3647(농대 학생회실)
-주최:제천농농회, 농대학생회
-후원:총학생회, 전국농민회총연맹
- 축하합니다
-기공과 법기공교수님의 부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는 잘나가는 기공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공과회와 일동
-회계학과 92가 동대신문에 쓰는 말-경원형 생일 축하.
-교선부
-회전지와 향주의 생일을 무지하게 축하합니다. 예쁜 회전지와 멋진 향주가 되기를 DUBS34기 기술부가 기원합니다.
-정도야 귀뚜라미 것 역시 축하한다. 정도야 오래오래 맑·결에 남아서 후배생일 챙겨줘라!
-말·철 선배가
- 수고하셨습니다
-92학년도 새 지하조직 “밀일” 회원 광릉 수목원에 다녀오시느라 수고맙습니다.
-행정학과 元珍이가
-정태형, 호현 국가고시 보시느라 수고맙습니다.
-날고 가는 W-J가
-원진아!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힘들지만 항상 열심히 하는 원진이 되길 바란다. -92 학
-개강날 시계분실했어요. 금주 시계(오메가)를 찾아주시면 수고파(학림관 5층)로 연락해 주시와요. 사례하겠습니다. P.S 임마시게임.
-K-J-E
-꼭 모이자! 수학과 카타리가 저서 꼭 나오세요. -인원동문회
-Family Bowling이 참신한 91, 92학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초보자는 환영. 여학우는 더욱더 환영!
-9월2일 개강파티 모여라. 슬며씩 고 싶은 사람.
-행정학과 3학년 과대표
-경계(남)4년 개강파티가 9월2일 밤 8시에 있습니다. 마음은 가볍게 지갑은 무겁게. 모두 참석하십시오.
-과대표
-천안고와 여교가 동문회를 합니다. 날짜는 9월4일(금)입니다. 시간은 5시30분 모두 나와주세요.
-동문 막내나
-동대수원고동문회. 학기도 시 작했는데 한번 모이죠. 강학금만 사람들이 한턱 내네? 9월4일 5시 만세합니다.
-행정 92일동
- 안녕하세요. 요번에 극예술연 구회 92동마니들이 work-shop “극을 잊으시나?”를 공연합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극돌도 있어요”
-이명오 선배 생일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RCY체육대회가 9월6일(일)에 있사오니 선·후배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CY 91일동
- 열심히 합시다
-개강입니다. 선적이, 인수, 은 미누나, 진옥이, 정인영, 정이영를 비롯한 80여명의 야간강좌 강부들의 힘찬 2학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1200여 야간강좌 학우들에게도 2학기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법대학우여러분의 건강만 알릴을 다시 보게되어 무지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꼭 국민대통령을 추대하여 민중정당을 앞당깁시다.
-2학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관촌도 열심히 해봅시다. 사관촌 여러분 Love합니다. -村長
-그리고...
-국문과 9월5일~6일 1학년 M-T 무사히, 자칫해 다녀왔을 싶어서.
-국문과 귀염이(?)
-여수항우회 9월3일5시 만세 시비앞에 모이자. 안전:카니발 및 동맹이발관.
-P.S:1학년 안나오면 가만 안 된다!
-Captain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 성안, 상훈이와 함께 ‘헌터스’ 1주년 기념을 축하합니다. 헌터스는 영원하리~ -도환
-경희야! 축하한다. 열심히 해라. 큰 일꾼, 큰 사람, 우리의 hope 황선아! 사랑!
-시들지 않는 불교아동학과 90
-수학교수님의 새내기 결혼이와 성취한 남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교과 광범과
-9월22-23-24일 한외과 대학극단 애오라지 10주년 기념, 정기공연 축하합니다. -知人
-알립니다
-새로운 기획으로 산악부원 2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산을 사랑하는 산남산녀 여러분! 누구든지 동아리(학생회관 3층)으로 찾아 오십시오.
-스프츠는 살아있다 산악부 일동
-민호형! 얼굴 좀 봅시다. 동문인데 얼굴 가려주세요. -92학년 동문
-참사랑회에서 오는 9월21일(월) 프랑스에서 일일 찾기를 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화랑선우부원 여러분! 새학기에 운동 열심히 하고 학교에 대학생이 됩시다. -실외부에서
-9월8일 전자계산학과 노래모임 ‘아트네의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부부동반 환영 / 동아리내 장
-청심회가 오는 9월5일에 창립 12주년 동찬회를 한다나요?? 서울에 계신 후 3·4선배님들께 필히 그 날까지 손편지 기다립니다.
-에과의 귀염둥이가
-베나레스에서 2학기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경각원으로 오후6시 이후에 오시면 됩니다. 여자 단원이 많이 부족해요. -베나레스
- 동국대학교 중앙노래대 일선에서 참신한 92학원을 모집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지현(이명:피플)이형 새학기 공부 열심히(?) 할시다.
-91년 1학기 기숙사 보편 206호 방죽들
-92수교 은영아! 지금은 힘들어도 언제든 웃음 날아 돌아온다. -네 진실한 친구 수현
-사랑하는 대자봉 가족 여러분! 이제 활기찬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날을 열심히 하고... 후회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죽는 날까지 정가를 사랑해 주세요.
-동국대법창조 불교아동학과 제 6대 학회장 강경희 학우여! 힘내라! 잘해라 일원단들 모두들. 우리가 있다. -89학번 선배 일동
-성희, 영은, 수경, 찬주, 경희, 은경 방학 잘 보냈어? 이제 해는 동남에서 솟아 찬란한 빛을 보내고 있다. 황홀한 빛을 향해 출발! -milk
-그리고
-학생회관 휴게실에서 먹다버린 쓰레기, 강릉은 왜 탁자위에 놓고 갈까?
-성건동 들파스
-1800 상경·학우들의 건강만 모습을 다시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경대
-상국, 김중, 학원아 축하했다며... 건강만 모습으로 다시보자. -B·B·D
-M·J·방학 잘 보냈어? 내가 그 때 바보였다. 너의 그 열정에 멋진 의미를 나는 알면서도 아니길 바랬다. 너는 진실된 마음을 알았다. 난 널 사랑해. -백치애인

최근들어 국제사회에는 이념이나 군사적 힘의 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동서방진체계의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의 세계적 붕괴체제로의 통합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유럽공동체(EC), 일본 등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면서 지역별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합화와 블록화가 교차되면서 세계는 이른바 경제냉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향후 국제경제 교류는 각 경제블록들의 지역기주의에 따라 그 방향과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8월 12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NAFTA를 통해 북미 3개국은 역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단일시장으로의 통합을 대내외에 선언하였으며, △EC통합에 대비한 사전적 대응 △일본경제에 대한 견제 △브라질적 경제구조를 가진 3개국의 이해 일치 등이 그 배경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NAFTA는 현재 진행중인 EC통합에도 영향을 미쳐 회원국간 미결사항들에 대한 타결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내년초에는 12개국으로 구성된 EC가 경제통합을 마무리 짓고 단일시장화 된다는 물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7개국까지 이에 가세하여 거대한 유럽경제지역(EEA)을 출범시킬 계획으로 있다.

한편 국가간 경제력의 격차와 역의 국 중심의 무역구조 등으로 인해 역내국간 경제협력의 활발치 못하였던 여타지역에서도 구미선진국들의 경제 블록 형성으로 공동대응기 위해 정부간 연대강화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경제의 블록화 추세는 수출의존형 저유가경제구조와 저리율 특성에 의해 블록화에 편승할 수 없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리율인 만 감안한다면 일본도 우리와 처지가

비슷하지만 일본은 이미 세계시장의 상당부분을 구조적, 기능적으로 일본 경제에 의존하도록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큰 피해는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고 총체적 국제 경쟁력 향상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국제무대에 기술보호와 환경보존을 앞세운 새로운 보호무역 경향까지 대두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근

특해, 그로 인한 갈등 등으로 사회적 불안정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국제경제적 상황변화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가 없었다.

현재와 같은 지역별 블록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삼호호수의 원적의 적응 △이들 국가에의 직·간접 투자진출 △교역의 다변화 △동북아경제권, 동아시아경제협력체 등에의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지만 국제경제의 거대한 변화속에서 우리 경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개혁적인 조치들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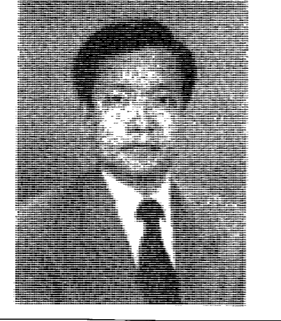
특히, 정부의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구조와 행태가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것이다. 우리경제가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체질의 강화가 급선무이며, 그 수단으로 기업의 스스로집중 완화 △전문화 △대규모 구조 개편 등이 요구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은 경쟁력유착과 구조적 금융부채를 등에 업고 상호지급 보증제도와 내부거래방식을 악용하여 기업영역의 무분별한 확장을 도모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재벌그룹 가족간에 탈법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높은 수준의 실질적인 동일인본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내의 한계기업의 우량기업의 지급보증으로 연명시키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산업구조조정에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구조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집단의 자기자본비율은 대만 등 경쟁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인데도 금융비용 부담은 엄청나게 높아 가파르게 추락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집단의 경영

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과거처럼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백화점식 경영을 지속해서는 국제경제전쟁에서 어느 한분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대기업은 소유의 분산과 주력업종의 전문화를 통해 세계 1류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며, 중소기업은 협력체결을 통해 기술혁신 및 제품고급화의 질적역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을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별 블록화 등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외교나 해외진출전략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 기업의 조직 및 경영태 개혁 등을 통한 총체적 경쟁력 향상을 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국제경제무대에서 천덕꾸러기 미아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사

홍승기
경상대 교수·국제경제



경제블록화 현상... 기술개발 시급

본적인 개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온 지역별 블록화현상 등 선진국제경제질서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음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와 일관성의 결여, 그리고 자주화되어 된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조정이나 분배·복지구조의 개선을 제때에 이루지 못한 채 가까운 시간만 남비하였다. 또한 사회의 민주화·자유화과정을 통해 기업이익과 근로이익이 간략되고, 많은 기업가들은 기술혁신이나 생산활동 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도출해 나가는 일에 주력하면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경제성장, 기술 및 인력 경제논리에 우선하면서 경쟁력유착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대내외적 위기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총체적 국제경쟁력의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한 후발학습자단계에서 품질 및 기술경쟁력에 의존하는 선진동행자단계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는 만큼 기술개발을 제때에 이루지 못한 채 가까운 시간만 남비하였다. 또한 사회의 민주화·자유화과정을 통해 기업이익과 근로이익이 간략되고, 많은 기업가들은 기술혁신이나 생산활동 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도출해 나가는 일에 주력하면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경제성장, 기술 및 인력 경제논리에 우선하면서 경쟁력유착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필요기구·의결기구·전제기구로서의 교수협회의 설치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교수제임용제의 폐지=유신정권에 의해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교수제임용제는 대학교원의 고용계약기간 단위로

지난 90년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된 현행 사법학교법에는 경우 대 대학과 교수가 교수자본에 예속된 도구를 전담하게 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현행법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등 6개 교수단체들로 구성된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교육주체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8월20일 연세대 강기원 기념관(1층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대학강사(문성호·성대 정외과 교수)의 기초법제와 안철환(전남대 교육학과 교수)등 토론자 6명의 질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이에 이날 공청회 내용의 주요부분을 요약·발제한다.

△교수임면권의 귀속=사학법 제 53조의 2 제1항 제2항에 교수 임

이 규정은 총·학장의 후보선출에 대한 사전절차를 담고 있지만은 않으나 민주적 절차를 위해 교수협의회의에 의한 후보적정제를 명문화하여야 하고 임면권은 총·학장을 면직하고자 할 경우에도 교수협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총·학장 권한 통제를 위한 교

택으로 인해 신분상의 혼란과 위협을 받고 있다.

국공립법을 막론하고 심각한 신분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교수제임용제의 폐지와 명백한 신분보장을 규정하는 법제정도 절실히 요망된다.

△재정=학교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정에 교직원으로서 구성된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학법 제29조 4항, 제31조 3항)

◇교육관계법 개정 서울공청회 초록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로 명문화해야

명 및 면직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귀속시키면서 다만 법 인정관으로 총학장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학교법인에 대해 부처에 상응하는 권력행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사학재단 내지 재단이사장의 권력남용 여지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비영리적·공익적 목적만으로 존재한다는 기본정신에 위배된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총·학장이 임면하도록 하여야 한다.

△총·학장의 임면권=총·학장 임면은 사전 절차없이 학교법인이 직접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학법 제53조)

수회의(또는 교수협의회의)의결기구화=교육법제117조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국립대학교에 평의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사립대학교에도 90년 사학법 개정(26조의2)을 통해 대학평의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첫째, 총장이나 학장이 위촉하는 자들로 평의원이 구성돼 학장회의와 다를바 없으며 둘째,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로 불과해 견제기능이나 결정을 행사할 수 없고 셋째, 예산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권조차 행사할 수 없어 학내의 최고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에는

이날 공청회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계법 개정에 인식을 공유했으며 모든 회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현실도파적이고 막대한 명목보상금에 따르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 과제인식을 위한 후보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미영 기자)

사설

'집안문제' 집안에서 해결해야

53년 국내 최초의 종합대 승격, 이와 더불어 본교가 자랑하는 것이 사회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10만여 동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다. 하지만 여지껏 동국발전에 대해 동문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여론은 높다. 본교가 지닌 인적자원의 무한한 잠재력은 단지 '10만여'라는 수의 결합이다. 아니면 동문의 참여부족에 어떠한 원인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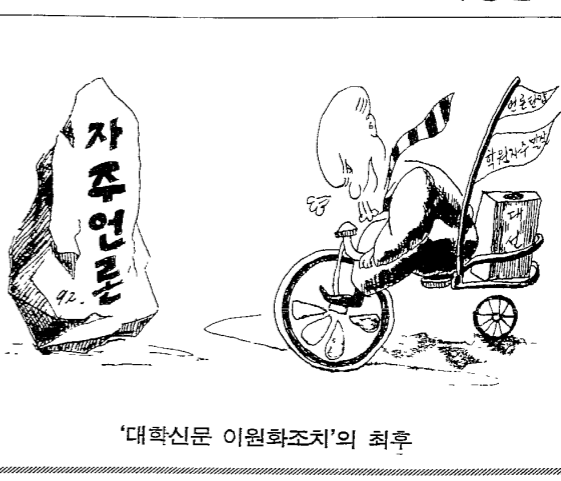
개강과 더불어 학내 생경화된 총동창회임대비 부활문제에서 절차상의 비민주성, 총동창회개선과 함께 동문들의 학교발전의 참여부족까지 시야를 넓혀 이번 사태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총동창회임대비 부활을 조지정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학교당국의 답변은 미흡했다. 기존의 입장을 재검토했던 수준으로 끝난 학교측의 답변과 공개 행위를 위해 공개질서에 참석할지의 여부에 대한 불투명한 입장은 대책위를 비롯한 대다수 학생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또한 학교와 일시적, 대대적인 선전전 등 임의비 부활문제에 현재 학내생경사안으로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망할 뿐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않는 총동창회역시 학생들은 감지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총학의 미진한 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런 사안은 분명 총학에서 주도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총동창회의 '별일도 아닌데 일을 크게 벌인다'는 식의 태도나 '이번사안은 원칙적으로 총동과 학생들의 문제'라며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학교당국, 그리고 학교발전이나 학원적주어 있어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지도방향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총학. 이번 사안을 주제로 해결해야 할 각 주체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학원 각 주체는 매년 등록금투쟁이나 교수채용과정에서 학교당국-학생간의 마찰을 예방하지 못하고, 사안이 발생하고 이것이 극대화되어서 해결하려는 방편을 경험해왔다. 등록금투쟁의 경우 예산내역공개와 학생회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본문을 접지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이 나올때마다 학교당국은 대화했으며 교수채용의 경우도 같은 의욕만 제기될 뿐 이에 대한 자료공개·해명의 절차는 없었다. 이렇듯 학내사안이 해결되기까지 "한편 집안싸움"을 벌여야 했던 원인이 사안마다 공개와 의견수렴의 부재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할만한 동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동문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동문은 학교가 시끄러우면 투자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다. '시끄러운 학교'를 바라보는 동문역시 학교당국과 학생들에게 감지않은 시각을 갖고 있음을 학원 각 주체는 명심해야 한다. 현재 대책위와 학교당국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동창회임대비 부활과 관련한 오래와 지나친 억측,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원 각 주체는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시끄러운 일'다음의 사태수습이 있어야 하는가. 이번 총동창회임대비 부활과 관련된 고지서 일방발부에 대한 학교당국의 해명, 총동의 해명과 이후 총동사안에 대한 설명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문-학생-교수가 하나되는, 명실상부한 민주공공을 위해 각주체의 의사수렴 토대, 중요사안의 공개등을 정례화시키는 작업도 중요하다. 동국인 모두가 '집안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하며 일간자 외부에서 떠들석하게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자체수습하는 능력또한 동국발전의 한 길임을 학원 각주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東國漫評



'대학신문 이원화조치'의 최후

좋은 컴퓨터 만들기 10년

NEWTEC

10년전 FDD의 개발로 업계를 깜짝 했던 신성전자를 하십니까?

바로 그 살아있는 정신 - 신성전자의 새 이름입니다. 이처럼 세운상가의 작은 컴퓨터 업체로 출발한 저희 뉴텍은 불과 10년 남짓한 컴퓨터 역사의 산으로 부지런히 신기술 개발에만 해 왔습니다. 그것은 보다 좋은, 보다 합리적인

애호가들의 기대에 보답하고 싶다는 우리들의 열정이 남보다 강했던 탓이었습니다. 그 결과 뉴텍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중소기업 최초로 시스템 Q마크를 획득하고, 뿐만 아니라 SVGA 카드 Q마크를 로 내최초로 받는 등 기술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나 소비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컴퓨터 전문회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 뉴텍은 386에 이은 486의 을 다시 한번 합니다.

MODEL명 : MECCA 43d
 CPU : 80486 DX-33
 CACHE MEMORY : 256KB
 RAM : 4096KB
 FDD : 5.25(1.2MB) 3.5(1.44MB)
 HDD : 120MB
 VIDEO BOARD : 한글 SUPER VGA (해상도 : 1280X1024, 1024X768)
 MONITOR : 14" COLOR
 (해상도 : 1024X768, 0.28%)
 POWER : 230W
 MOUSE : BALL TYPE

706-0990 (내선)
 706-0988 (외선)
 706-0989 (외선)
 706-0990 (외선)
 706-0991 (외선)
 706-0992 (외선)
 706-0993 (외선)
 706-0994 (외선)
 706-0995 (외선)
 706-0996 (외선)
 706-0997 (외선)
 706-0998 (외선)
 706-0999 (외선)

706-0990 (내선)
 706-0988 (외선)
 706-0989 (외선)
 706-0990 (외선)
 706-0991 (외선)
 706-0992 (외선)
 706-0993 (외선)
 706-0994 (외선)
 706-0995 (외선)
 706-0996 (외선)
 706-0997 (외선)
 706-0998 (외선)
 706-0999 (외선)

지주의 재산권 행사 위한 강제철거

가스통에 화염병 ... "목숨걸고 싸워야죠"



◇그동안 잦은 화재로 철거보다는 불이 무섭다는 서초동 꽃마을 사람들. 플래카드 뒤로 보이는 법원 건물은 철거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이들의 목숨걸고 지키고 싶어하는 모습이 너무나 멀리 있는 듯 하다.

서초동 꽃마을

현장취재

80년대 법원단지 조성이후 현직 고위급 지주들은 돈방석에 앉은 대신 무리가 판자를 입주자들은 길거리에 나왔을 지경에 처했다. 정부는 어떠한 대책마련없이 9월까지 모두 철거시킨다고 발표하고 88년 이후의 꽃은 화재와 일부의 투기꾼을 빙자해 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에 철거를 앞둔 꽃마을 주민들의 삶과 이후 부흥,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방화가 틀림없다

“엄마 철거없는 마을에서 살고 싶어요” 화재포토 메인기승 강제철거 웬말이냐! 정부는 각성하라 우리도 국민이다

강남개발을 미리 감지한 지주들이 땅을 사들여 꽃을 기르는 자들에게 임대, 꽃마을이 된 서초동이 이제는 투기문제와 빈번한 화재로 우리에게 알려져 익숙하다.

지난 88년부터 크고 작은 화재가 15건이나 발생했고 올해만도 5차례나 불이 난 서초동 꽃마을은 지난 3월27일에는 새벽2시에 불이 발생해 4명이나 목숨을 잃어 이곳 주민 2천3백여 세대는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를 화재에 가슴 졸이며 살고 있다.

그러나 경찰측은 화재가 발생한 때마다 단 한건도 정확하게 진상조사할 수 없었고 “전기배선”이 취약해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전기 과열”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꽃마을의 동네공방방 ‘건년방’의 책임교사인 조현철(27)씨는 “누전이라던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7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와 하는

데 취약시간인 새벽2시에 화재가 발생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라며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이 전기선등을 5개월마다 새로 바꾸고 있어요”라고 말해 방화될 가능성을 강하게 비추고 있다.

서초동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한번 불이 없었으면 다시 집을 짓게 되어 있고 만약 지을 경우 정부 차원의 철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 88년 꽃마을을 화재로 인해 4백50여 세대가 집단이주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지주가 내각을 위해 방화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현직 고위 공직자로 구성된 꽃마을 지주

81년 당시 평당 1만2천원이던 이곳의 땅값은 지금 3천만원으로 정중뛰어올라고 야말로 금싸라기 땅이 되었다. 법원단지 조성이 전 토피던 80년대를 전후로 부지를 잘 한 이 땅 주민들은 많아서 수억, 수십억을 벌게 된 것이다.

서초동 꽃마을의 지주들은 다음에 나오는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대부분이다.

서초동 꽃마을 주유지주명단

이름	비고
한병채	변호사, 전국회의원, 전 원법재판소 상임 재판관
이명박	국회의원, 전 현대건설 회장(1284명 소유)
노재봉	국회의원, 전 국무총리
김홍수	변호사, 대한변호사 협회 부장
정동철	산업 안전공단 이사장, 전 노동부 차관
신승환	태평양 그룹 부회장
박한창	꽃마을 지주 연합회 대표, 한국풍선 과장
4살 꼬마	원간 '말지' 1992년 5월호 165쪽 참조(98평 땅 소유)
최영철	국인 제지 사장
안병수	변호사
전두환	전 대통령(1628번지 1호 소유)
김영민	변호사, 전 서울 교정 검사
김정호	외교 안보 연구위원, 전 유엔 대사 전 걸리엔 대사
김윤근	변호사, 전 서울 검사장
변홍성	아나운서
하일성	아주 해설가
신재유	전 국회의원
양현국	소미정보지원 분청 조정 위원장, 전 서울 교정 검사
이영기	변호사, 전 대법 공판 부장
장석화	국회의원, 변호사
한호성	농협 민선 회장
이규동	전 대통령 정인(1628번지 6호 소유)

빈익빈 부익부

평당 3천만원 당위에 80만원짜리 무리가 판자집.

“살다보니 이만큼 와서 살게도 되네요” 지난 88년 벽없는 전세금과 아이들 때문에 세들어 사는 것이 힘들게 되자 4백여만원을 들여 이곳에 입주하게 됐다. 이복자(36·가정주부)씨는 판자의 거적으로 만든 3평 남짓한 판자집을 가리키며 쓴웃음을 짓는다.

“저희도 불법이려는지 알아요 구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일단 집을 비우고 나가서 살던 영구임대주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돈을 어

떻게 믿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달기는 격이지”라며 “달이 바뀌지도 않아요. 여기 들어올때 들은 돈 5백만원만 이주비로 주면 어떻게든 나갈겁니다.”

박노봉자, 기술자, 미용사 등 직업의 형태가 다양한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80년대 계가일이 본격화되면서 철거당한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다. 당시 약작빠른 브로커들은 무단으로 사유지에 판자집을 지어 한때 당

청소년 유해환경

“학교에 가기 싫어요. 아이들이 거지같이 산다고 놀려요.”

“학교가 너무 멀어서 힘들어요. 자꾸 잠이 와서 중점이 내려요”라고 박순화(12·국민학교 5)학년 딸한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먼

곳까지 학교를 다녀야 한다. 행정당국이 이곳으로 주민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전기주주 아니면 친척집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에서 반부의 격차로 단절감과 소외감을 끝날 수 없게 된다. 한창 엄마, 아빠에게 어리광을 부릴 나이에 저녁밥을 짓고 어린 동생을 돌보아 하는 이들은 물론 극소수지만 자칫 비행소년이 되기 쉽다. 조현철씨 말에 따르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빈 집이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 성병전염 이 등의 탈선의 장소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6건의 적발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이 지역 주민들은 화재, 철거장폐 등 불안한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불안감속에 살고 있다.

서울시가 오는 9월까지 서초동 법조단지엔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겨울 7월23일자

지금까지 언론은 대대적으로 화재, 투기지역으로 꽃마을을 매도하고 서주시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물론 이층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이중 거주자들이 있다. 그러나 일부이고 대부분이 대책없이 철거를 당했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투기꾼의 문제를 인식하고 성의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거대내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가스통을 준비하고 화염병까지 동원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울 계획이다.

겨울도 다가오는데, 공영택지 개발이 사유지 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정부는 강제철거를 한다고 한다.

겨울도 다가 오는데... (전미영 기자)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가장 병폐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유통의 전단계이다. 이는 격심한 중간의 불안정과 이로 인한 가격파동의 빈발, 유통구조의 복잡성·다단계성·비효율성으로 인한 과다한 유통마진 및 품질저하 등 농민에 기인하는 국민보건에 대한 위협과 그 보호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유통과정상의 문제점 발생의 주요인인 유통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보호로 요약될 수 있다.

변화나 신진도착 및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스스로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셋째, 농촌의 도로여건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운송이 어렵고 이는 필연적으로 수송비의 증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다섯째, 법정도매시장 및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농민의 경우 시장

일평균 다단계 유통구조, 소매시장의 시설부족, 지나치게 다양하고 영세한 규모를 가진 소매상의 난립으로 중간 도매 및 소매단계에서의 유통마진이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정책적으로서는 가격정보체계의 정비와 신

술하가적·수량·시기 및 시장교섭에 있어서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생산자조직을 통한 직판기능의 수행등도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들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상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생산지 및 소비지의 직판점 설치, 통신판매제도 등을 통하여 직접적 연결될 수 있음으로써 선진도매시장의 측면에서나 가격면에서나 생산자로서 소

가격파동·과다한 유통마진 - 유통과정의 병폐

정책적 개선과 생산자 조직 결성 시급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어 좋은 가격을 받기가 어렵고 유통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수송비, 상·하차비 비용을 포함한 유통비용의 추가적 증가가 필연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섯째, 농안법(農安法)에서 경제도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의매매에 의한 과다한 수수료 책정과 더불어 공경가격의 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우선 소규모 영세한 농민들의 입장에서 상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들이 가격면에 있어서 손해를 볼 우려가 크다.

둘째, 농민들에게는 영농비, 교육비용의 지출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나, 정부나 생산단체로부터의 대부금에 의존하고 조건의 까다로움 때문에 현금회보를 위해서라도 상인들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셋째, 산지에 충분한 저장 및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상조건의

속화, 생산지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의 확충, 도로망 정비, 대도시 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법정도매시장의 양적 증가와 시설의 질적 상승,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소매시장의 정비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민의 경우에도 농산물의 등급화, 규격화, 포장의 고급화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화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며, 생산자조직의 결성을 통하여

비차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직거래가 계속 활발하게 이어질 경우 외국농산물의 시장개방압력에 대응하는 방법은 물론 값싸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승구 (대학원 박사과정·농업경제학)

동약로

“여보세요, 네, 회의하러 서울 가서서 안오셨다구요. 언제쯤 오시는지도 모른다구요.”

지난 8월3일 본사 기자와의 취재약속을 어긴 정보관리학과 허아무개 교수 행방에 대한 가족의 무덤덤한 대답이다.

교수의 자질문제, 인격모독적인 언사 및 비인간적 강의태도, 커리큘럼에 맞지 않는 강의내용을 이유로 지난 5월27일 시작된 학생들의 교수연구실 점거농성이 4개월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학생들은 많이 지쳐있어 보인다.

하지만 “더이상 부도덕한 교수실에서 배운 손 없습니다. 허교수가 완전피진하지 않으면 정보관리학과 학생들이 전원 수강거부를 감행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이들의 표정은 단호하고 결의에 차 보였다.

현재 정보관리학과 학생들은 정보화개론의 3과목의 전공수업을

을 못듣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허교수는 휴직계를 냈으나 학교측의 휴직사유 불분명으로 수리가 거부됐으며 지난 90년도부터 해외교원교수로 가고 싶어 하던 그의 뜻이 이번 기회에 성

합리적 도피



“이후 다른학과나 후배들에게 보다 향상된 강의와 교수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위해 이번 기회에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중앙교과위원회 장은경(법학4)군의 말은 서울의 교원확보를 61%에 훨씬 못 미치는 43.4%의 교원확보율을 가진 경주캠퍼스에 시간강사가 많은 점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준다. 그리고 강의계획서 제출, 강의평가제 실시요구는 교원확보율이 절대부족한 경주캠퍼스에서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각인하고 활발하고 구체적인 교과위사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비슷한 신희로 서울캠퍼스 인도철학과 김아무개 교수의 경우 지난 90년도 2월 학생들의 무능교수 퇴진 투쟁을 벌이자 들연 학술진흥재단 후원으로 인도로 해

의연수를 준다. 그리고 그 7월 정치학회 모임에서 친여성 발언을 해 문제가 된 행정학과 박아무개 교수 역시 90년부터 1년간 연구년 해당 교수로 선출됐다. 이에 일부 교수들은 “박교수의 연구년 선출은 속이 뻘뻘 드러나는 눈속임임에도 불구하고 선발한 학교당국의 처사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이후 다른학과나 후배들에게 보다 향상된 강의와 교수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위해 이번 기회에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중앙교과위원회 장은경(법학4)군의 말은 서울의 교원확보를 61%에 훨씬 못 미치는 43.4%의 교원확보율을 가진 경주캠퍼스에 시간강사가 많은 점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준다. 그리고 강의계획서 제출, 강의평가제 실시요구는 교원확보율이 절대부족한 경주캠퍼스에서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각인하고 활발하고 구체적인 교과위사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박선경 기자〉

사이다의 세대교체!

시원시원한 미남 미녀의 사이다

시원시원하게 삼시다!

매실맛이기에 독특하다.
매실맛이기에 깔끔하다.
매실이기 때문에 몸에 좋다.

매실과음 10% 함유 알카리성음료

자매품

●차게에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해태 사이다

동문참여 저조... 가장 큰 장애요인

총동 문제를 알아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창회입회비 안내는 학교는 본교뿐이다. 오히려 회원기금을 강제시킴으로써 총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88년 총동입회비 동결의 이유는 총동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였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의 입회비부활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고지서발행부부는 88년 당시 학생총회의 결의와 올해 응급급입회사항을 완전히 파기한 행위다. 학교당국은 공개해명 및 공식사과해야 한다.”

“사실 입회비는 강제력이 없다. 관례상 학교에서 일괄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의 입회비부활도 관례적 조치였다. 따라서 학교당국의 조치에 대한 깊은 의욕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타당하지 않다.”

최근 학내 쟁점이 되고 있는 총동입회비부활에 대한 총동, 학생들, 학교당국의 주장이다.

‘총동창회입회비 부활을요 분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월31일 도서관에서 집회를 갖고 △총동의 공개해명 및 사과 △88년 동결된 총동입회비 6천만원의 행방공개 △총동학생회장 명의의 대응배임 등을 내용으로 한 공개질의서를 학교당국에 전했고 어제(1일) 학교당국은 공개질의서에 대해 답변했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

또 지적되는 것이 학교발전에 대한 노력부재이다. 현재 총동의 학교직원들은 8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교 70주년장학, 86년 이후 매년 8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고시생, 체육특기생 격려장 학금이 부분 전달되고 올 10월 말까지 자동충당시발급기 1대를 기증할 계획이다.

총동의 가장 큰 학교지원사업은 장학사업이다. 그러나 동국학술문화연구센터(가칭) 건립기금등 학교발전계획에 따른 예산확보나 동문의 참여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국내에서 인적자원이 가장 풍부한 본교의 자원은 어디로 갔는가.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70만 동문중 ‘학교발전’에 참여하며 성금을 기탁한 이는 그 동안 없었다.

재단이사 동창회지분

74년 학내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파견된 G건물(제화관) 소유권 분쟁으로 관련이사가 재단이사회에 파견된다.

현재 재단이사 동창회지분은 3명이다. 정관 24조(입원의 선임방법) 2항은 “이사정원 13인중 9인은 대한불교 조계종 계적승려로 하고 기여는 이교도가 아닌 교육계 및 각계의 타당성은 인사로 한다”라고 규



△지난달 28일 91학년도 후기 학우수여식에서 총동입회비 부활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번 입회비 부활 논란을 계기로 총동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서평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선진국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외국업체선정, 우리 토양에 맞는 경영철학은 없는가.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이 뒤진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계속 이전받아야 할 것인가.

서울대 공과대학을 “실험실에서 가장 뛰어난 공대”라 표현하는 등 그 후진성을 적절적으로 비판했던 이면우(서울대 산업공학)교수가 쓴 ‘W이론을 만들자’는 일종의 한국식 경영철학이다.

‘W이론’은 저자가 X·Y이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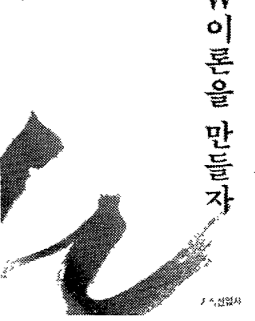
장이다. 저자에 따르면, 선진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따라 잡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따라잡는다 해도 그들은 이미 몇백년 앞선 새 첨단기술을 개발해 놓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앞지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만의 독특한 고급상품을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저자인 이면우 교수는 이 하이터치(high touch)제품의 개발을 강조하며 소·취·필의 비유로 설명한다. “미국의 첨단기술(High Tech)개

W이론을 만들자

이면우 교수 지음/지식산업사

ISBN 89-709-0-1000-1
이면우 92



우리 토양에 맞는 새로운 경영철학 제시

어려운 내용 쉽게 표현하려는 노력 돋보여

국), Z이론(일본)에 새로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불인 이름이다. 즉 사람들의 업무태도는 수동적 이므로 작업관리의 강화를 통해 제조업의 발전은 도모할 수 있다는 X이론, 70년대 이후 미국의 우주개발과 80년대의 컴퓨터혁명을 축전시킨 Y이론(사람은 자신에게 적당한 동기만 부여되면 능동·창의적으로 일하기를 즐김으로 경영철학이 업무의 자율성을 지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입장,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일본의 모방에 맞게 철저히 소화함으로써 기술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Z이론. 이에 맞서 W이론은 우리토양에 맞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우리 문화에 어울리는 인간관리체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은 우람한 체력을 바탕으로 달려 나가는 ‘소’에 해당하며, 미국의 첨단기술을 이용해 결승점까지 먼저 뛰어내리는 ‘소머리 위에 앉은 쥐’는 일본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첨단제품에 우리의 창의력과 문화적 특징을 가미하여 소비자의 잠재욕구를 충족시키는 하이브리드 제품을 개발하는 ‘쥐머리 위에 앉은 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7월8일 전곡서점에 배포되기 시작, 출판 1개월 반만에 5만부 이상의 판매실적을 기록한 ‘W이론...’의 인기에 대해 저자는 “첫째 이해하기 쉽도록 집필했고 둘째 X·Y·Z이론이외에 표현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이유가 될 것”이라고 밝힌다. 실제 인간공학이 전공인 이교수

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글자를 크게하고 쉬운 내용전달을 위해 4주동안 50여번을 고쳐썼다고 한다. Z이론의 핵심은 이제 마지막장인 태극마크에 있다. 기본철학, 추진자세, 지도자정신, 실무자정신을 중심으로 공경이나 실험정신,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곧 비합리적이었던 잘잘아 정보혁명시대의 전기와 태평양시대의 시운(時運)을 맞아 문화선진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저자의 23년여에 걸친 산학협동연구와 현장체험이 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여러 실용적인 내용을 쉽게 표현하고 있어 다양한 독자층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화국)

총동, 사무실 마련으로 사업활성화 기대 입회비 부활 논란... 총동혁신 계기돼야

시키지 못한 채 기존의 입장만 재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동창회 무엇이 문제인가

매년 12월말 총동주최 ‘동국인의 밤’행사에 8백여명의 동문이 모인다. 이 행사에서는 또한 동국문화 대상·감사패 수여도 있다. 그러나 웬만한 ‘명함’없는 참석을 꺼리게 되는 분위기가. 본교 교수, 회사 전무·상무 등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본교 동문인 한 직원은 “총동행 사인에도 불구하고 왠지 주눅이 들었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총동 한 관계자는 “행사장으로서 총동참여가 활발한 동문은 적다. 대부분이 사회생활 5~10년이 후 지위가 안정되면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며 일부 명망가만의 모임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갖 출업한 동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총동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총동위원의 답변은 무엇인가. 만일 어떠한 ‘명함’도 없이 총동행사에서 소외된다면 그것이 그 동문의 ‘자격자신’일까.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력이 없는 관례적 조치였다가 계 계단 한 단계의 발이다. 그러나 동창회칙 30조(모교재단 임원파견)의 내용은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다.

30조 4·5항은 ‘파견인원은 모교 재단 이사회에서 분회(동창회)의 의결사항을 강력히 반영시키고 모교발전이 헌신적 역할을 다한다.(4항) 파견인원이 4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분회의 소환결의를 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물랐던 일”이라고 변명했다.

한 재단이사는 “학교정책을 집행할 경우 정·계계에 진출한 동문의 ‘힘’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따라서 총동관련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관례적인 동창회지분을 해석한다. 이는 후 총동위원을 전역인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가.

동창회 임원의 고민

“동창회사업은 활발하다”라고 항변할 임원이 있을까. 학교발전 노력부재 등 총동에 대한 학생들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총동활성화를 위해 나타나는 몇가지 장애 또한 존재한다고 총동위원들은 토로한다.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이 가입인원의 참여부족이다. 졸업후 5년이 넘어서야 회원기금을 하고 더욱이 회비납부율이 저조해 사업의 폭이 좁아지는 비율은 교과 20%정도. 나머지는 총동이사·부회장단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올 5월 매입한 사무실에 대부분의 임원이 상당한 기대를 건다. “셋방살이”를 전전하며 여기저기 옮겨다녔던 때와는 달리 안정된 사무실은 곧 동문의 참여활성화와 자금운용의 폭 확대의 토대가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제 ‘제정질’을 시작한 총동이 사무실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양하고 충분한 재점토해 볼 일이다.

몇가지 의혹들

88년 당시 동결된 총동입회비 6천만원은 다음해 총동으로 집행됐다고 유주형(총남방송 부회장)총동 부회장은 밝혔다. 그러나 학교당국의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

또 민주운동회, 총학, 학교당국이 사견정의했다는 소문에 대해 유부회장은 “상수회 모임에서 총동학생회장과 논의한 적은 있으나 ‘총동’은 식의 확실한 담원은 주지 않았다. 또 총동개선 및 문제점을 듣고자 방 문했던 민동 신경림회장과는 논의에서 ‘민동이 제기하는 문제가 개선되며 총동이 새로워진다면 입회비는 검토할 일’이라고 했을뿐 구체적 약속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학교당국, 총동학생회장 등과 사전협의하고 이제와 발표한다”며 입회비부활 사전 동의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

부활저지투쟁의 문제

31일 대책위 첫집회이후 학생들은 고지서발행부부와 몇가지 문제에 대해 학교당국과 총학에 공개해

제30회 학술상 작품 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무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알찬 수확을 거둬온 본사 학술상이 올해로 30 회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학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응모요령

원고매수: 人文·社會·自然科學 3개 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의(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소수학과의 학술논문은 예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本報에서 위촉하며 임상작과 함께 발표

◇논문제출

1992년 10월 4일~7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입상작 발표

1992년 10월 27일자 本紙 紙上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 (02)260-3491·2

東大新聞社

예비군 기본교육 소집

향년법 제6조에 의거 '92'학년도 예비군 기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교육대상: 전 예비군(교직원 및 학생: 단 연구, 관리과정 제외)
- 교육대상 제외자
 - 가) 92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
 - 나) 92년 1월 1일 이후 동원훈련 필한자
 - 다) 85년 12월 31일 이전(전역 7년차 이상)에 전역한 일반하사, 방·보충역에 해당되는 자
 - 라) 84년 12월 31일 이전(전역 8년차 이상)에 전역한 장기하사 이상 간부에 해당되는 자
 - 마) 미필 보충역
- 대학별 교육 일정

대 학	교육일정 및 장소	대 학	교육일정 및 장소
경 상 대	9.21일: 학군교 9.22일: 본 교	이 부 대	9.21일: 본 교 9.22일: 학군교
공 과 대	9.23일: 학군교 9.24일: 본 교	불 교 대	9.23일: 본 교 9.24일: 학군교
문 과 대	9.25: 학군교	사 법 대	9.25일: 본 교 9.28일: 학군교
농 과 대	9.28: 본 교	대 학 원	
이 과 대		교 직 원	

- 교육장소: 본교(중앙당)-개별 도착 학군교(문무대)-간선 전철역 학군교 입구 삼거리에 버스 대기(08:00까지)
- 교육시간: 08:00~17:00 (08:00 이후 도착자는 차량대기 없고 귀가 시킴)
- 복 장: 예비군복(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미착용시 귀가 시킴.
- 휴 대 품: 주민등록증(학생증), 교육소집통지서, 필기구.
- 중 식: 학교에서 제공함.

동국대학교(서울) 직장예비군 연대장

동원논집 수록논문 모집

- 수록논문명: 동원논집제5집 ('92. 11~'92. 12월 사이 발간)
- 수록논문모집
 - 가. 대 상: 본교 석·박사 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 나. 원고매수: 인문·사회계-150매내의 자연계열-100매내의(200자기준)
 - 다. 제출분야: 이론학계·인문학계·사회과학계·이학계·공학계·농학계
 - 라. 수록편수: 10편수록
 - 마. 신청서제출마감: 1992년 9월30일
 - 바. 제출처: 대학원 학생회 학술부(신청서 양식은 학생회에 있음)
 - 사. 원고마감일시: 1992년 10월 30일
- 수록논문선정
 - 분야별로 접치지 않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된 논문은 지도교수 승인하에 수록.
 - 소정의 원고로 지급.
- 본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은 연구업적으로 인정됨

제8대 대학원 학생회

교육실습 신청서 접수

'92학년도 후기 교육실습예정자의 교육실습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대 상: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중 전기교육실습서 연기원을 제출한 자, '92 학년도 2학기 복학자.
- 자 격: 가. 교직과정 이수자 명단이 교육부에 제출된 자. 나.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인 자.
- 교육실습 신청서 접수기간: 92. 9. 4(금) ~ 92. 9. 9(수)
- 교부 및 접수처: 사범대학 및 이부대학 교학과
- 기 타: 교육실습 대상자는 교육신청서 제출시 실습학교의 교육실습 동의서(사대 교학과내 비치)를 받아 필히 교학과에 제출할 것.

사범대학장

효성그룹 회사 설명회

'92년도 취업철을 맞이하여 본교 4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취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효성그룹 회사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대상 학생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다 음

- 개회일시: '92.9.2(수) 14:00~15:00
- 장 소: 동국관(L 101)
- 제 목: 효성그룹 회사 설명회

학생처장

도서차람증 검인 및 발급

- 기 간: 1992.8.25(화) ~ 9.9(수)
- 장 소: 도서관 2층 대출창구
- 준비물: '92학년도 도서차람증, 2학기 등록영수증 (신규 및 재발급·환명환관 사 진 1매, 2학기 등록영수증)
- 위 기간이 지난후 검인을 받지 아니한 차람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역교과 복년 사범대와 편지교류 추진

과성원 결의속에 대중적 통일사업 벌여

역사교육과 편지교류추진위원회(위원장=최주원·3)는 지난 1일 오후 5시 학림관(소강당)에서 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측 김용태 사범대학 역사학부의 '북한지역 고졸대학사 준비를 위한 편지교류발송'을 가지는데 활발한 편지교류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번 편지교류는 조국통일운동의 신심을 드높이는 한편 연방제 통일방안에 입각한 통일조국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의 주체가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를 할 수 있는 7천만

거레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활성화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역교과 편지교류의 구성은 지난 5월 27일 정기총회에서 '북한지역 고졸대학사 준비를 위한 북녘의 학우와의 편지교류'를 압도적 결의이데 통과시켜 지속적인 사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지난 7월 2개의 소모임, 3개의 집행부추체가 결집해 이뤄진 것이다. 이후 편지교류는 이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학생회로부터 일임받고 구체적인 사업공유·확산등을 통해 지난

북녘의 김용태 사범대학 학우들에게



본교 역교과에서도 북한대학과의 편지교류등 구체적 통일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1학기 학사경고 7백67명 학원안정화대책이후 실체화

지난해 9월 17일 교무위원회에서 개정된 학사정책과 성격교 관련학칙에 따른 지난 1학기 성적경고 처분학생은 모두 7백6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각 캠퍼스별로 살펴보면 서울캠퍼스가 6백74명으로 경주캠퍼스의 1백93명에 비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했다.

또 학년별로도 1학년이 2백59명, 2학년은 2백70명, 3학년 1백51명, 4학년 1백8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 학원안정화대책에 따른 학생회판타기도드러내 반발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내지 못함으로써 1학기부터 시행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조성에 자극제로서의 의도였을뿐 학생회판타기에는 없으며 기존에 명시돼 있던 학칙을 저울에 서야 실체화 시킬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명진관 보수 완료 도로포장공사 실시

관리처(처장=민태진·화학)는 지난 24일 내부공사가 끝난 명진관 앞 시멘트 포장공사를 지난 29일 실시했다.

우천시 통행의 불편을 고려해 이루어진 이번 공사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계획을 세웠으나 하수도 매립공사로 자갈이 많

은 기중구조물제가 지적대 시멘트 포장으로 대체됐다. 개강이후 진행돼 수업에 지장을 준 이번 명진관 공사에 대해 관리처의 한 관계자는 "업체(우창토건) 선정이 늦어지고 방학중 사업이 많아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각 단대와 파를 연결하는 인턴로 설치한 지난 24일 모두 마무리했다.

본교생 성원(?)에 안기부 직원모집원서 바닥

방학중 도서관 게시판에는 안기부 직원모집 공고가 붙었는데 원서를 교부하는 각 교학과와 취업과의 원서 1백50여장이 들어가고, 없어서 못 줄지경으로 학생들이 물려 반유신, 반군부특제의 선봉이었던 본교의 위상에 비추어 격려감을 느낀다.

이에 본 회계학과가 한파다 "내년쯤엔 제안기부 동대 동문회도 열수 있었습니까요."

본교 역교과에서도 북한대학과의 편지교류등 구체적 통일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 YS가 민장당 '2대 당정책'을 들어올리려(?) TV매체들은 '합도 않고 대평정'이라는 한 목표아래 3당합당도 불사하며 여기까지 온 인물'이라며 역경속의 한 후연드라마(?)를 소개.

이날 이 TV를 본 모 학생은 "올림픽 황정조선수의 56년 민족한을 끝내달라달라 이후로 TV뉴스시간 대부분을 할애해 방영된 YS인물드라마에 시청자 대부분은 슝숯했습다."

◇중앙대책위 위원장 최우석군 만나

지난달 8월 10일 2학기 등록고지서가 일제히 발부되는 과정에서 지난 89년 이후로 동결된 총동맹회입회비(이하 입회비)고지서를 학교측이 학생들과는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발부했다.

이에 학생들은 즉각적으로 거센 반발을 보이며 각과, 단대 차원의 비상 대책위가 꾸러지기 시작, 지난 31일 '총동맹회입회비 강제징수 부활을 모 본분대항을 위한 중앙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대중속에서 실천하며 검증받는 투쟁할 터”

이에 이후 중앙 대책위의 투쟁방향과 결의를 대책위 위원장 최우석(문과대학생회·영문4)군에 들어본다.

—대책위 결성의 경위와 과정은—

입회비가 일방발부된 직후 지난 18일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총학의 대응방향이 당시까지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시급했으므로 하루단위에서부터의 대책위가 만들어

경주 졸업사진 재촬영

경주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최덕규·법학4)는 제1차 졸업앨범 사진촬영 누락자 및 사진촬영장 13개학과 4백여명에 대한 2차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촬영 일정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일까지인데,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자전대, 7일 법경대, 8일부터 9일까지 상경대의 순으로 진행된다.

경주 타자실 개방

경주캠퍼스 학생처(처장=설영기·무역학)는 타자실습실을 지난 8월 2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재학생 취업대책 방인의 일환으로 개방한다.

신청서는 도서관 타자실습실에서 접수하며 사용료는 1천원이다.

도서관 이용자 늘고 대출량 감소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관장=홍영백·사학)은 지난 1일 92학년도 1학기 도서대출량을 6만2천7백97권으로 집계했다.

대출도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 2만2천12권, 사회과학 1만1천9백27권, 응용과학 6천717권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구조변경으로 인해 휴관일이 많았던 관계로 작년 1학기 총대출량 7만3천2백73권보다 약 6.5%가 감소한 것이다.

불교전서 제11책 보유편 1권 간행

본교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위원장=이지관·불교학)'는 지난 89년 '한국불교전서 전10책'의 일간에 이어 제2차 사업의 일환으로 본 한국불교전서 '제 11책 보유편 1권'을 간행했다.

이 보유편 1권에는 앞서의 전 10책에 수록되지 못한 새로운 자료와 편찬실 사정으로 미뤄왔던 자료를 모아 신라, 고려, 조선 3기로 분류해 소개된다.

이용호 동문 등단

'문학공간' 평론 추천 '문학공간' 평론 추천 이용호(국어교육·92졸)동문이 '폐허속에서 꿈꾸기—기형도론 정립을 위하여'라는 평론으로 '문학공간' 9월호를 통해 등단했다.

제학중 본사주의 동대문학상 평론부 본상을 수상한 바있는 이용호는 평론가 윤병호씨의 추천을 받았다.

한편 이용호는 문단등단 소감을 통해 "앞으로 한편의 작품이라도 정확하게 읽어 낼수 있을때까지 부지런히 읽고 쓸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 총학 2학기 진군식 “학우들과 함께하는 2학기”

경주캠퍼스 '총학생회(회장=전준근·철학4) 2학기 진군식'이 내일(3일) 오후 1시 중앙관에서 열렸다.

이번 진군식은 3부로 나뉘어 식전행사로 연합노래를 공연해방뜻을 담은, 본행사도 방중사예교감인 총학과 황우석(노동자대학 교수)씨의 '대학인의 정치의식'이란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앞으로 식후행사인 면전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방중사예교감인 총학과 황우석은 "새롭게 2학기

“대중속에서 실천하며 검증받는 투쟁할 터”

이제야 될 것이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후 21일에 약 30개과 학생회장연석회의를 거쳐 31일 중앙대책위가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참여 단위의 대책위 투쟁이 갖는 의미는—

=아직까진 국민윤리학과, 무역학과, 농림경제학과 등 15개과 6개 단대의 대책위만 결집해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상경대부들만의 고인도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기존 학생 대중들과 긴밀히 결합하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책위의 필요성은 중요한 문제죠. 물론 총학생회는 학생대표기구로서의 지도적 투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대책위 구성의 의의와 구

“대중속에서 실천하며 검증받는 투쟁할 터”

원의 환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투쟁방향과 결의는—

=향후 학교당국, 총동맹회, 학생대표가 모인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학교측의 공식해명과 사과를 받아내며, 총동맹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대중적 결의의 강을 만들 생각입니다. 또한 학생대중들과 실천하는 속에서 이번 문제를 풀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조용수 기자)

“대중속에서 실천하며 검증받는 투쟁할 터”

으로 대출했다.

하지만 소장도서의 부족으로 인해 해마다 늘어나는 이용자들의 대출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많은 도서확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주캠퍼스 도서관(관장=김선학·국문학)92학년도 1학기 일반도서대출량이 지난 19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총 3만4천2백76권으로 지난해 3만1천3백55권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단과대학 도서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인문대가 1만3천267권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1천6백71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문별로 문학과 사회과학이 50%, 이학이 2%의 대출량을 보였다.

경주 추석귀향 사업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와 인권복지위원회가 후원하는 추석귀향사업이 오는 9월 9일 오전 11시 정문앞에서 출발한다.

이용신청서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총학생회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경주 추석귀향 사업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와 인권복지위원회가 후원하는 추석귀향사업이 오는 9월 9일 오전 11시 정문앞에서 출발한다.

이용신청서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총학생회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경주 추석귀향 사업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와 인권복지위원회가 후원하는 추석귀향사업이 오는 9월 9일 오전 11시 정문앞에서 출발한다.

이용신청서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총학생회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경주 추석귀향 사업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와 인권복지위원회가 후원하는 추석귀향사업이 오는 9월 9일 오전 11시 정문앞에서 출발한다.

이용신청서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총학생회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경주 추석귀향 사업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와 인권복지위원회가 후원하는 추석귀향사업이 오는 9월 9일 오전 11시 정문앞에서 출발한다.

이용신청서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총학생회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경주 추석귀향 사업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와 인권복지위원회가 후원하는 추석귀향사업이 오는 9월 9일 오전 11시 정문앞에서 출발한다.

이용신청서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총학생회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경주 추석귀향 사업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와 인권복지위원회가 후원하는 추석귀향사업이 오는 9월 9일 오전 11시 정문앞에서 출발한다.

이용신청서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총학생회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경주 추석귀향 사업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와 인권복지위원회가 후원하는 추석귀향사업이 오는 9월 9일 오전 11시 정문앞에서 출발한다.

이용신청서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총학생회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경주 추석귀향 사업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와 인권복지위원회가 후원하는 추석귀향사업이 오는 9월 9일 오전 11시 정문앞에서 출발한다.

이용신청서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총학생회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경주 추석귀향 사업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와 인권복지위원회가 후원하는 추석귀향사업이 오는 9월 9일 오전 11시 정문앞에서 출발한다.

이용신청서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총학생회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경주 추석귀향 사업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와 인권복지위원회가 후원하는 추석귀향사업이 오는 9월 9일 오전 11시 정문앞에서 출발한다.

이용신청서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총학생회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SAM YANG GROUP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젊음을 과시하지는 건 아니다. 치기어린 낭만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인간힘을 다해 봄으로써 나의 모든 가능성에 부딪쳐 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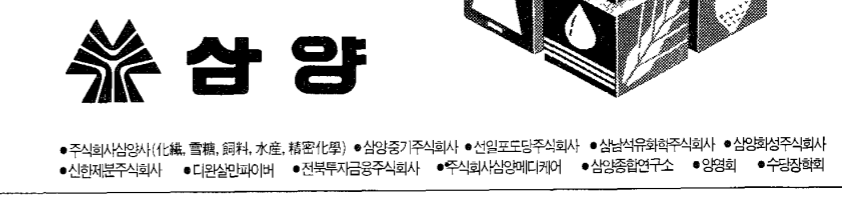
함께 도전하는 의지, 행동하는 젊음—
삼양그룹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개척자 정신—
이것이 바로 삼양그룹이 지난 70여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정신입니다.

1924년 이 땅에 산업의 씨앗을 뿌린 이후 섬유, 식품, 사료, 기계, 화학 부문에서 기술의 문을 연 삼양의 개척정신은 금융, 유통, 환경사업, 정보산업에 이어 이제 새롭게 고분자, 의료용 소재 및 제약, 발효공업 등 첨단 산업에 도전합니다.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 진지한 눈빛 속에 내일을 이룩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취적인 기상처럼 삼양그룹은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주식회사삼양사(仁化, 農林, 木産, 精化) • 삼양식품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주식회사

짓밟혀도 다시 피는 민들레처럼...

희망의 노래 '꽃다지' 첫번째 정기공연 '좌표, 1992'

아무리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고 야마는 노동자들처럼 피어난 들꽃들의 모습—꽃다지.

87년 전곡을 뒤덮었던 노동자 대투쟁이후 노동자들의 생활과 투쟁을 노래로써 진솔하게 그리고자 하는 많은 단체들이 생겨났다. 특히 89년초 창단되어 노동자문예활동을 기동성 있게 수행해왔던 '노동자노래단'과 삶의 노래 '에울림'을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두단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한 의식과 전문적 음악성을 토대로 더많은 대중들에게 친숙함으로 다가가기 위해 지난 3월1일 희망의노래 '꽃다지'로 통합, 창립했다.

꽃다지는 그동안 창립취지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창작작업에 몰두하는 한편, 직접 노동현장에 들어가 노동자들과 함께 하였으며, 공연활동과 파업지원활동을 해왔

다.

한편 그간의 노동자 노래운동의 내부적인 성과를 정리하고 꽃다지 활동내용을 검증하고자 오는 5일과 6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있을 첫번째 정기공연 '좌표, 1992'를 남겨두고 있다.

이 공연에서는 꽃다지의 1집에 이어 수록되어 있는 '민들레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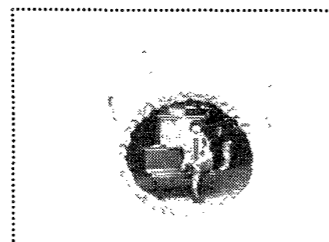
반복이 아니라 노동자의 일상정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선보일 슬라임드와 연극 등이 기대된다.

이 공연은 앞풀이마당, 분풀이마당, 1~4부, 뒷풀이마당의 모두 여섯마당으로 이뤄진다.

앞풀이마당에서는 87년 이후 성장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최고봉으로 삼는 88년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슬

대해 르포르썸식으로 접근한 연극을 통해 현정권의 본질과 반민중성에 대해 폭로하게 된다.

마지막 뒷풀이마당에서는 '단결과 연대'라는 주제로 노동자들의 생활과 정서를 보다 폭넓게 대중들에게 선보임과 동시에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한다. 이때 특별출연단체인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래마을' 서충현 노래단 '조곡과 청춘'의 노래마당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 '좌표, 1992'는 현재 노동운동의 위치를 알리고, 전망을 제시하는데 한몫을 하리라 기대된다.

창작—공연—현장활동 펼쳐 노동운동 탄압양상 고발

'민주노조총단결기' '노동탄압분쇄기' 등 신곡8곡과 '단결투쟁가' '붉은 노동자의 노래' '부사의 유언' 등 기존의 노래를 재구성하여 부르게 된다.

또한 이 공연은 단순한 노래의 리드와 영상을 통해 재현해낸다. 분풀이마당에서는 89년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노동운동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각종 반민주악법과 시행령, 노동부지침, 편파적 재판, 지배이데올로기의 유포, 공권력 등에

동아리 '극예술연구회'를 찾아서

극예술연구회(회장=차운환·식공 3)는 요즘이 가장 바쁜 때다.

지난 30일 제4회 신·후배 합동공연이 끝나고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있을 워크샵과 가을에 막을 올릴 정기공연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내내이런 쉼 20주년을 맞는 극예술연구회(이하극회)는 그중

"동국연극·리얼리즘추구의 선두주자"

안 귀약했던 학내예술단체중 그나마 꾸준한 활동을 해온 단체이다.

지난 74년 이맘때쯤 몇몇 뜻있는 학생들에 의해 창립된 극회다. 하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본교의 전신인 해화전문학교 시절, 지금은 연극영화과의 명예교수인 유원목 교수, 장한기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끌어온 연극모임으로 부

터 동국연극모임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0년 연극영화과의 신설과 함께 동국 아마추어연극의 열기는 사그라들었다가 극회의 창립으로 새 전기를 맞았다.

70년대 문예활동이 모두 그러하듯 학내의 연극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사르트르와 까뮈의 극조차 율될 수 없었으며 사전 대본검열이나 공연 2~3일전 극을 취소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극회는 '원기를 말할수 있는 연극'에 끈질기려 애썼다.

사회상을 반영하듯 어두운 빛깔의 연극이 주로 무대에 올려졌다.

80년대에 조금 자유로워진 분위기에서도 이같은 경향은 계속됐다.

이에 대해 김승호(경제82)군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84년도에 공연된 황석영씨의 '돼지꿈'이나 91년 까뮈의 '정의의 사람들'까지 모두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묘사하고 흑인문제를 다룬 '조오즈 황제' '시즈위벤지는 죽었' 등에서도 알수 있듯이 극회연극의 주된 흐름은 단적으로 죽음의 빛깔을 띠고 있다"

문화단신

공연 안내

◇극물있사옵나...동아리 극예술 연구회 13번째 공연작품, 3-4일 오후 5시, 5일 3시, 5시30분, 학생회관 5층 극회 소극장.

◇이방인들...제16회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작인 동시에 극단 '부활'의 제34회 공연작이기도한 이 연극은 분단의 비극과 통일 의 염원을 사실주의 형식에 기초를 두고 부분적으로 표현주의 양식을 취하는 이중구조로 밀도있게 다루고 있다. 오늘(2일)부터 7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 336-4192.

◇찌꺼기들...극단 '성좌'에서 막을 올리는 이번 작품은 야누쉬·그와프스키의 원작을 번역·각색한 것으로 경쟁원을 무대로 심대소녀 범법자와 영화감독의 갈등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화·수·목 오후 7시30분, 금·토·일 오후 4시30분, 7시30분. 성좌소극장, 745-1214.

◇문예아카데미 '92년 가을강좌...민중미술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14일부터 19일까지 다양한 주제로 오후7시부터 9시30분까지 문예아카데미 강당에서 열린다. 월요일은 '영화로 보는 세계영화사(2)', 화요일은 '현대미술의 새로운 이해', 수요일은 '한국 리얼리즘의 형성과 전개', 목요일은 '한국 역사교과(2)', 금요일은 '서양 음악사의 비관적 이해', 토요일은 '건축을 위한 역사와 이론'을 각각 강의한다. 745-6471.

◇사랑의 기초수화교실...수화 연구팀 보급이라는 목적으로 손짓사랑회에서 매 학기마다 일반인들에게 기초수화를 교육하는 이번 행사는 9월3일부터 11월1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양양길 공동건물 1층 E104에서 실시한다.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원정관(공동건물) 1층 손짓사랑회 동아리방에서 하며 수강료는 1만원(교재비포함)이다.

이달의 시

동막의 가을하늘은
윤 제 립
(국문과 83졸·(주)오리콤 카피라이터)

친구여 가을은 또 산수문(山水紋) 어여쁜 거울을 들고 와서 서양화 연습실 때쯤 리터넬비의 목을 셋게 하고 학생회관 소변기 바닥의 누런 이빨을 닦아 한다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무 목욕의 소나무 세 빛깔을 보라고 석조관의 창문을 열게 한다 창란의 연기로 썰매고 그 아우성으로 짝어늘린 어깨의 먼지를 털며 오봉산 일월도(五峰山日月圖)로 일어나 않는 북막의 하늘을 똑바로 보게 한다

여름내 자리를 지친 동우담이 그 선한 눈을 들어 도반(道伴)들의 아픈 몸을 보게 하고 마물로 갠된 새들을 시계탑 위로 돌이와 앉아 청명한 시계소리로 지저귀게 한다 천둥번개로 고향을 지르며 물러다니던 검은 구름들이 흰 옷을 입고 와서 모든 담치 않은 죽음을 이야기하게 한다

가을하늘은 구겨진 칠보운문단(七寶雲綵緞) 따워 번쩍이는 입성이 아니라 반듯하게 다려진 푸른 색 심의(深衣)를 입고, 깊어지는 길동의 함성씨 바라보듯 성한 몸으로 돌아와 노는 구름에 새대들을 바라본다 술이 익었는가를 물으며 호리병 속에도 커다 한하늘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물이 끓었는가를 물으며 소 발자국에 핀 들에도 맑은 눈이 비치는 걸 보게 한다

올라다 보시게, 이 땅의 가을 하늘 중에도 제일 깊은 동막의 하늘을 짚어보시게, 소를 물러 가는 우리 생각의 그리움이 언제쯤 그 정수리에 가 닿을런지

생각나니, 목욕의 가을은 기침 하나도 가르침이 없네, 그라운드 배음이 없네

알아들시다

종합주가지수 5백선이란? 먼저 종합주가지수란 일정시기의 주가가격을 100으로 하여 산출한 주가의 지수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1980년 1월4일의 주가 100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승된 모든 종목의 원시가액의 ×100 이다. 여기서의 자가지수

예를 들어 ○○주식 1000주가 100원씩, △△주식 500주가 110원씩이라 할 때 종합주가지수는 $\frac{(1000 \times 100) + (500 \times 110)}{(1000 \times 100) + (500 \times 100)} \times 100$ 과 같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500선이란 1980년 1월4일 주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92년 9월2일 현재 5배로 뛰어올랐음을 말한다.

한편, 주가지수는 증권시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가지수나 경기지수처럼 경제상황도 알려준다. (문화부)

종합주가지수

80년대에 조금 자유로워진 분위기에서도 이같은 경향은 계속됐다. 이에 대해 김승호(경제82)군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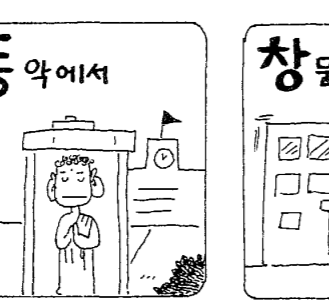
"84년도에 공연된 황석영씨의 '돼지꿈'이나 91년 까뮈의 '정의의 사람들'까지 모두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묘사하고 흑인문제를 다룬 '조오즈 황제' '시즈위벤지는 죽었' 등에서도 알수 있듯이 극회연극의 주된 흐름은 단적으로 죽음의 빛깔을 띠고 있다"

이달의 시

친구여 가을은 또 산수문(山水紋) 어여쁜 거울을 들고 와서 서양화 연습실 때쯤 리터넬비의 목을 셋게 하고 학생회관 소변기 바닥의 누런 이빨을 닦아 한다

이달의 시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무 목욕의 소나무 세 빛깔을 보라고 석조관의 창문을 열게 한다 창란의 연기로 썰매고 그 아우성으로 짝어늘린 어깨의 먼지를 털며 오봉산 일월도(五峰山日月圖)로 일어나 않는 북막의 하늘을 똑바로 보게 한다



이달의 시

▲술이 생각날때 종종 읊미 하는 시한수가 있다. 어떤 때 술을 잊지 못할까/허를 풀 해어졌던 빛과 정답달 때/다같이 청은의 뜻을 따지 못하고 백발이 성성한 때 놀라고/이십 년 전에 헤어져 떠돌다/살친리 밖에서 다시 만나/이럴 때에 술 한잔이 없었다/월생의 사연 어찌 트라리? 라는 백낙천시인의 시는 술에 대한 자연스런 심정을 표현한 듯하다. 우리가 술을 찾는 이유를 굳이 추악하게 하면 술은 즐거움 기분을 더욱 즐겁게 만들고 어려운 일은 쉽게 느껴지고 걱정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술의 흥겨움 때문일 것이다. ▲술은 인간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동·서양의 역사는 어찌보면 술의 역사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술은 인간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는 이집트, 시리아, 아시리아 전역을 편력하면서 포도주 양조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또한 중국 역사에 보면 맨처음 술이 궁중에있어 임금이 마시려 할 때 주위의 신하가 "술이 적당하면 흥겨워지고 과(過)하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라고 간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술에 얽힌 이야기를 하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술은 마취의 기가 있는 음식이다. 적당히 마시면 약처럼 효과가 있고

▲술이 익었는가를 물으며 호리병 속에도 커다 한하늘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물이 끓었는가를 물으며 소 발자국에 핀 들에도 맑은 눈이 비치는 걸 보게 한다

▲올라다 보시게, 이 땅의 가을 하늘 중에도 제일 깊은 동막의 하늘을 짚어보시게, 소를 물러 가는 우리 생각의 그리움이 언제쯤 그 정수리에 가 닿을런지

▲생각나니, 목욕의 가을은 기침 하나도 가르침이 없네, 그라운드 배음이 없네

자동차문화의 21세기를 열어가는데 현대자동차서비스

밝고 아름다운 자동차 문화를 위해—

현대자동차서비스는 4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편리함을, 사회에 풍요로움을— 현대자동차서비스는 4대사업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자동차문화를 꽃피워 갑니다.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위한 자동차판매사업, 좋은 품질로 고객에게 보답하는 부품판매사업, 판매 이후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차량정비사업, 풍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중정비판매사업—

자동차에 대한 4대사업으로 고객의 안전과 함께 하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인간을 위한 서비스, 자동차를 통한 사회봉사의 이상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서비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판매

차량정비

부품판매

중정비판매

현대자동차서비스(株)